

# 영화 서치 시사회 스페셜 GV

- 일 시 : 2018년 8월 23일 (목) 21:20 ~22:00
- 장 소 : 대한극장 3층 6관
- 사 회 자 : 유튜브 천재 이승국,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이승국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를 제가 선 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들 보셨나요?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천재 이승국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국이고요. 오늘의 서치GV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앓을께요. 서치라는 영화는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신 것을 시작으로 전세계 엄청나게 많은 영화제들에 출품되면서 관객들에게, 평단에 사랑을 받은 명화로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다음주죠. 8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일찍 보셔서 행복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 좋게도 10일 정도 됐죠. 이전에. 처음가봤어요. 소니 내부 시사실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봤어요. 한 열흘 가까이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 영화 본 사람들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본 분이 한국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일도 일이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영화 다 재밌게 봤다고 대답하셨는데요. 제가 더 말을 이어가기 전에 기습적으로 난 이 영화가 이게 마음에 들었다. 만인 앞에서 육성으로 한 마디 해주실 분 계신가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손으로 관객을 가르키며) 예!

관객1 아까 영화를 보는데, 기본적인 영화 틀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영상통화나, 페이스북 라이브 등으로 화면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했구요.

이승국 예

관객1 지금 현대인들은 이렇게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생활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존 영화들과 많이 틀려가지고.

이승국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은 '보여줘서~' 까지만 들으셨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굉장히 신선한 포맷으로 이 영화가 구성되어서 굉장히 재밌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이야기가...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자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녹아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말씀해주신 분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신선한 포맷. 그리고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추척스릴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이 영화, 정통 스릴러의 플롯을 갖고 있는 이 영화를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 이십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배상훈 교수님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배상훈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영화 서치 같은 걸로 여러 분과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 자체는 온라인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사이버 공간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중에서 실종을 다루는 것. 현실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주변적인 정황들. 말하자면 실제로 우리 세대간의 소통의 부재라던가. 있을만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영화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니깐 기존의 틀하고는 상당히 다른, 스릴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깊은 주제를 담고 있는... 옆에 계신 천재 이승국님과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좋은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승국 개인적으로는 교수님께 천재 이승국이라고 불려본 적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재밌어 하고 있었습니다. 평해주신 것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형식의 영화였다는 것. 모두가 동의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단어 중에 가족 얘기를 좀 해주신 것이 있어요. 소통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영화 예고편만 봤을 때는 단순한... 정말 신선한 포맷의 스릴러. 무서운 이야기로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내내 사람을 쪼개 만들고 무서울 줄 알았는데, 끝까지 영화를 다보고 나니깐. 의외로 이게 가족 얘기가 같이 있구나. 그냥 분위기로만 가는 영화가 아니라 나름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담겨놓은 영화구나 그래서 좀 더 놀랍기는 한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족, 소통 이런 쪽에서 어떻게 깊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상훈 그러니깐 시작은 스릴러인데, 중간에 가족 드라마, 다시 스릴러, 가족 드라마. 2개가 섞여 있지만 사실 우리 관객분들이나 제가 사는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뉴스 틀어보면 스릴러 같고,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가족 드라마니깐. 막 섞여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위험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공간. 특히 우리가 가지지 못한, 일부는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나누고 싶지만 얼굴을 보고는 하기 어려운 그걸 사실은 SNS를 통해서 하는 이 영화는 잘 구성해놓은 것 같아요.

이승국 기본적으로 사건의 시작들. 사건의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말씀해주신대로 SNS를 활용하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 간에 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하니깐, SNS로 넘어가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통의 부재가 이 영화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배상훈 그렇죠. 사실 이 영화도 그렇지만 가장 중심거리가 아버지와 딸이지만,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 그러니깐 아버지도 어머니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만, 딸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지만 이걸 같이 공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러니깐 이 딸은 그런 아빠가 좀 싫지는 않은데 서운함. 서운함. 그래서 다른 쪽으로 연결되는거죠. 아빠는 사실은 딸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되면 죽은 아내에 대한 기억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힘들지만, 단편적인 SNS공간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깐 주요한 포맷은 그거잖아요. 아빠와 딸이 뭘~로 대화를 해요? 페이스타임. 그런거죠. 직접 말하는 건 몇 번 못 보셨을꺼예요. 그러니깐 저도 그런거 같아요. 저의 어머니랑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국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낀게 소통의 문제, 가족,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미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페이스타임 정도는 하긴 하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페이스타임도 잘 안하는 부녀관계, 모자 관계 많거든요. 그나마 소통은 있고, 아빠가 아주 노력하는 아빤데, 사실은 소통의 부재라는 게 부재라기 보다는 결여된 부분이 딱 하나일 뿐인 것 같아요. 부재가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내 아내가 돌아간, 죽은 이후. 내 딸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하나. 꼭 극복해야 하는 한 가지는 극복하지 못한 부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소통의 부재에서 보다는 크다면 크고, 디테일하다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 딸과 아내에 대해서. 내 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 안했던 그 하나. 그 아버

지로서 한 실수가 엄청나게 큰 나비효과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단순히 연락 안하는 소통 부재가 아니라 뭔가 결여된 가족들. 현대로 넘어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결여된 부분이 있는 가족들로 인해서 프로파일러이시니깐. 많은 사건을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요런 문제가 실제로 현실에서도 벌어지기도 하나요?

배상훈 제가 사건을 이야기하면, 대개 커지죠.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이승국 아. 큰 사건들이 많아요?

배상훈 예. 실제로는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다루는 사건들이... 한국 사회 프로파일러들이 다루는 사건들이 상당 수가 친족간에 벌어지는 거죠. 소통의 부재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서로 간을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죠. 제가 오늘 몇일 전 부터 봤는데(?)... 가장 잔혹하지만... 어제 인제 범인이 잡힌, 과천의 토막살인 사건을 보시면은... 근데 과천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과천하면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토막살인사건. 이은석 사건이라고도 하죠.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인제... 왜 그렇게 찾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모하고의 소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깐 그 아이가 서로 등을 돌리게 된 과정이 얘기가 없다보니깐 그렇게 된거예요. 가족 간의 소통이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얘기를 안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요즘 카톡같은 걸로 하고 마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죠.

이승국 사실 요런 부분. 실제 범죄로 이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더 큰 사건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것 같아서

배상훈 아, 이건 가족 영화입니다. 가족 영화.

이승국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소통을 더 하기 위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가족 얘기도 있고, 또 나중에 깊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너무 참신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저는 영화를 보다보면은 세 가지 궁금증을 아마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관람포인트일수도 같고, 의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영화를 볼 때, 초반부에 그런 질문이 머리 속에 자꾸 떠올랐어요. 언제 진짜 영상이 나올까? 언제 실제 카메라로 찍은 배우 얼굴이 나올까 초반부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다 중반부에 가니깐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갈까 하고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야~ 이젠 알겠어. 끝까지 가는 건 알겠는데, 과연 니가 날 지루하게 하지 않고 이 방식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까라는 치기어린 반항심까지 들더라고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는데, 결국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장면을 온갖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막 맨 처음 윈도우XP, 실제로 전 영화 시작할 때 기사실에서 오류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XP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핸드폰 그리고 후반부는 애플 튜토리얼 같은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맥을 안쓰거든요. 아 애플은 저거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여러 영상들을 보여주고, 또 요즘에는 많이 안쓰기는 하지만 스크린세이버. 화면보호기가 그렇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막 몽환적으로 나오는데. 온갖 장난을 치면서 정말 실험적인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너무나 영화가 실험적이

다보니 사실은 감독님도 처음에 이 영화를 안하실라 그랬다 해요. 이 영화 제작하신 분이 저도 나중에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원티드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만드신... 제가 외우려고 했는데... 티무르, 티무르. 그쵸. 베... 그래서 썼어요. 티무르 베크맘베토프 감독님이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내셨대요. 이 분이 직원들이랑 미팅을 하고 나서 화상채팅 미팅이 끝났는데, 같이 미팅한 동료 중에 한 명이 컴퓨터를 안 껐대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뭐하는지를 봤는데, 그 사람이 뭐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컴퓨터 내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타이핑 치거나 하는 장면이 다 화면에 공유가 되는데. 타이핑 치는. 영화에도 나오는데. 타이핑을 쳤다 지웠다 조금 쓰다가 멈췄다 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 자기 동료의 감정이 보였더라요. 애가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알겠다. 그래서 감독님을 수소문하고 배우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다 처음엔 거절했대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게 영화가 될 수 있나? 실제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존 조 분은 나는 영화를 찍고 싶은거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은게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실제로. 그런데 결국은 한 번 해보자. 의미가 있을꺼다 하고 선봉적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성공했던 것 같죠? 주요했던게, 주요했던 것 같은 부분이 ...

관객들 예...

이승국 한 스무 분 정도에게는 주요했던 것 같아요. 개봉하고 이십 만명으로 늘어나길 바라봐야죠? 영화에 보면 그렇게 장면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중간 어느 부분. 아버지가 딸을 찾는 장면들이 굉장히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 천천히 마시구요. 아버지가 딸을 찾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 실제로 가능한지... SNS를 통해서 사람을 저 정도로 찾아가는게... 현실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인가요?

배상훈 요새 형사들이 저렇게 수사를 하죠.

이승국 형사들이요?

배상훈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탐문한다고 해서 우리 옛날 영화에 그러잖아요. 형사가 '이 새끼, 왜 구두신고 다녀' 그러면서...

이승국 약간 송강호씨 같은 분들...

배상훈 형사는 뛰어다녀야 돼. 발로 뛰어다니면서 탐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사람의 행적이 다 노출이 됩니다. 어디로? SNS에. 그래서 가장 많이 찾는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러가지 자기의 개인 미디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영화처럼 CCTV를 붙이면 앉은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동선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아까 나온 김에 과천 토막살인사건도 사실은 수사를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그 범인과 피해자의 동선을 핸드폰 위치 추적과 CCTV 추적을 매치시키는 것 만으로 범인을 잡는거예요. 그리고 수배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전국 도로에 있는 CCTV만 확인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범인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여기서 아버지는 그게 최선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딸 아이의 이동. 딸 아이와 접촉한 누구. 또 누구. 하다보니깐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실은 제가 마음을 먹으면 30분 만에 멧을 찾

아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노출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승국 그럼 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프로파일러시니깐. 이렇게 SNS, 인스타그램, 저는 형사분들이 SNS를 뒤지고 있는 그림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동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남긴 글과 SNS 사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까지도 파악을 하시나요?

배상훈 특정하게 쓰는 이모티콘과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합니다. 그럼 새로운 이모티콘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들을 일종의 빅데이터 통계시스템을 돌려가지고 그것이 어느 것과 연결되는가를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떤 이모티콘이라든가, 어떤 축약어를 쓰게 되면, 이 사람의 심리가 어느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거죠. 물론 그것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92~3%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걸 따라가다보면 이 사람이 쓴 카톡 메시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다음 행동은 어떤 것인가를 쪽쪽쪽 넘어가게 되는거죠.

이승국 그럼. 재미로 정말 재미로 내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나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형사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계시면 하고 아니면. 아까 하셨던 분이니깐 혹시 딱 분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아까 질문하신 분이... 아 네...

관객2 아 저, 아아 두개 쓰거든요.

이승국 아아?

관객2 예, 이걸 많이 써요.

이승국 어떤 문장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아를 사용해서

배상훈 그건 문장이 아니죠.

관객2 '아아 그렇군요' 나 '아아 그래요'

이승국 아, 모든 문장을 '아아'하고 물결 만들기 보다는 '아아'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 그런 걸 많이 반복된다. 그런 걸 많이 반복된다... 그냥 재미로 어떻게 파악하실 것 같아요?

배상훈 그걸... 뭐라고 해야 하죠. 귀차니즘. 대답하기는 그렇고, 뭐라하기엔 그냥 에휴... 이씨 이런거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욕이...

이승국 아, 머리 속에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

배상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승국 어떻게 동의하시는건가요? 지금도 사실 '아아' 하셨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관객2 글썩요.

이승국 그죠. 프라이버시니깐 저희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SNS를 안쓰시는 노년 중장년층 범죄자 분들이 편한 세상일 수 있겠네요.

배상훈 아니,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쓰세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승국 아...

배상훈 진짜 많이 쓰세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의 행동이 조금 영역이 좁으시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물론 격차가 있어 문제지. 어떤 분은 또 아주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시고, 아주 적게 쓰시는 분이 있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승국 점점 범죄의 사각지대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

배상훈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이승국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영화 속에 SNS도 좀 그런 점이 있었고, 행적을 쫓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깐. 영화 속에 유튜브 화면이 나오거나 주인공 중 한 명이었죠. 마고가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것을 보는 것 만으로도 사실 반갑기도 하더라구요. 아 저런게 나오네. 내가 저 맘 알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아, 이 친구가... 저는 관중이라서 하는건데. 관심을 요구해서 한다하기 보다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도피처로 여기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조금 안스럽더라구요. 마고라는 캐릭터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배상훈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사회 상호성. 사회성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깐 친구를 얻기 어려운 시대인 거죠. 친구라는 것은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신뢰를 얻고, 신뢰를 주는 과정이 반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도 그렇게 안시키죠. 왜냐면 싸움나고 갈등나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의 서열이 뒤쳐지는 점도 있어요. 누구나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1인 미디어에서는 내꺼만 보고, 내꺼만 잘하면 되니깐. 그래서 그것이 선호되거나 감성상으로 우선시되는 게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건 비극이죠. 왜냐면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아이는 사람과 상호소통해야 해요. 언젠가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성세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50대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것이 성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행태죠. 그런데도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무거워지고 무서워지는... 그럼 계속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는거죠. 그게 1인 미디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사실은 장점이기도 하고. 양면을 다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고도 그 어려운 어머니에 대한 그 상처를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어머니가 있는데... 나만 어머니가 없는데... 그러니깐 거기 영화 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그 얘기를 하는거죠. 마치 혼자 무엇인가 저금하듯이... 나의 기억을 저금하듯이 이렇게 하는거죠.

이승국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니깐, 저도 똑같진 않지만은 저도 그런 심리를 가져왔던 것 같기는 해요. 가족들하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니깐, 극중의 아버지처럼.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때. 단순히 내가 정보를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 이런 것 했어요. 나 이런 것 잘했어요. 나 이거 좋아해요. 말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살다보니깐 내 가족이면, 내 친구라면 어떻게 행동할 지가 뻔한 주제들이 있고, 어떤 키워드들이 있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피드백이 오구... 별로 안 좋은 피드백이 항상 오고... 아 그런 피드백 달라고

말한게 아니고, 그냥 이 말만 하고 싶다구요. 저도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실제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시고 연락주실 때가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더라. 아, 까먹고 말씀 안드렸네. 말씀드릴 수 있었으나, 드리면 또 어떤 피드백을 하실까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 마고도 그런 마음에서 1인 미디어. 말씀해주신 딱 그...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자식을 키운 것 같고... 그리고 영화가 현실적으로 잘 반영이 된 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답만 해주는 한 친구와 만 집요하게 일대일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피시 앤 칩스란 친구. 안타깝게 이 피시앤칩스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이름이...

배상훈 로버트

이승국 로버트라는 친구가 자기 사진도 아닌 사진을 올리고, 성별까지 바꾸고. 말투까지 바꾸며,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였었죠. 사실 이 친구 입장에서 보자면 마고라는 아이를 오랫동안 좋아했었고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환경이 섞여 있었을건데... 후반부에 가서 보면 단순히 숫기가... 소위 말하는 숫기 없는 아이. 소심한 아이가 아니라 조금 정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아이인 것 같다고 잠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지만요. 저 아이 행동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아이라고 봐야 할까요?

배상훈 그러니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의존형이 있고, 의존형의 인간형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거죠. 왜냐면 의존형이라는 것은 상대가 바라는 대로 대답을 해주는거예요. 바라는대로.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선 그렇게 전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되면 결국엔 상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사이버 상에서는 가능해요. 왜냐면 그대로 계속 써주는데. 묻는 사람이 사실 몰라요. 사실 그게 5-6페이지 앞에 있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게 되면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서른 몇 가지의 아이디를 가지고 서른 몇 가지의 방식으로 서른 몇 가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거예요. 그래서 별풍선을 얻고, 그렇게 생활했던 여자가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검거를 해서보니까 사기꾼이죠. 검거를 해보니까 전~혀. 자기는 그게 좋았대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의존을 해서...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긴 해요. 자기의 삶 자체를 원래 자기 삶 자체를 싫어했다고 해서요. 그런 형의 '로버트'. 로버트도 자기의 오프라인의 모습을 싫어하는거죠. 더 나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무섭고 두려우니깐 거기에 멈춰가지고 의존형 인간이 되는거예요. 요즘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잘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승국 알게 되셨다고 소문을 내시면 안되요. 이해하셔야 되요.

배상훈 그게 가치가 어떻다고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할 뿐인데, 근데 사회에서 부딪힐 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이승국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저는 혹시나 이 친구가 마음의 병이 좀 있다던가, 그런 재밌을려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은유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엄마가 과보호를 하면서



크고, 요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배상훈 그게 전제가 되는거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형사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 로즈마리 형사 ... 로즈마리 형사가 로버트의 어머니죠. 실제로는 이 어머니도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남편 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걸 비춰봤으면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남편 같은 나쁜 놈은 되면 안돼라고 이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런 이런 과보호를 하게 되니깐, 그런 형의 인간형을 말라지 말라고 형사가, 형사 엄마가 그렇게 하는거예요. 로버트가 그럼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어요. 로버트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접촉할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 거죠. 그게 전제가 되는거예요. 그러니깐 그렇게 의존적으로 클 수 밖에 없는거죠.

이승국 또 이 친구가 극중에서는 아주 자기가, 본인이 자의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았다고해도 큰 범위를 저지르고말게 돼요. 이 부분도 약간 저는... 은근히 몰입하면서 봤던게, 역시나 1인 미디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깐, 유튜버 친구들, 스트리밍 하는 친구들, 몇몇 친구들을 새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여성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분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영화나 웹툰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 경험담을 말씀해주시는데, 라이브 방송을 자꾸 하고, 자주 영상을 올리고 올리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주로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깐 가끔씩 자기를 봐주시는 분들 중에 혼자 자기랑 유사 연예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구독자와의 만남 이런 팬미팅 비슷한 것을 하셨는데,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반가워, 반가워'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짹, 짹, 짹, 짹, 짹, 짹, 깉~지. 한 남성분이. 이 사람 뭐야 이러는데, 나중에 갈 때도 한 분 한분 사진 찍어달라,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해드리는데. 한 분이 저랑 허그를 해달라해서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와락 안 왔대요. 나중에 메시지도 보내시곤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랑에 빠지셨다가 혼자 이별통보를 했다가. 조금 여기가. 그 분도 깜짝 놀라고. 저도 들으면서 이게 비단 허구의 이야기, 먼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구나 싶더라고요. 한국의 이런 일들도 자주 발생하는 편인가요?

배상훈 여러분 에이핑크 아시죠. 에이핑크 폭탄테러. 미국에 한 분 계시잖아요. 정확히는 캐나다 어디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IP추적을 해보니깐. 그걸 범죄의 분류를 해보니깐 '에로토메니아'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실제로는 특정한 형태의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본인의 망상에서 '에이핑크의 윤보미는 내 여자친구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천재 이승국은 내 남자친구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기 계시잖아요.

이승국 어디.. 어디요.

배상훈 놀라지 마시구요.

이승국 깉지만 끼지 마세요.

배상훈 그런 형태인 겁니다. 천재 이승국은 내 남자친구야 라고 생각하셔서 이따 나가실 때 이렇게 보는 그 분이 그 분입니다. 일종의 망상이죠. 그런데 현대사회로 갈수록 일반적인 감정을 이렇게 투영하려고 하는 그게 실제로 유튜브나 1인 미디어나 그런데서 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나만 보잖아.

이승국 아. 그쵸. 모니터에서 나만 보죠

배상훈 그런거예요.

이승국 아~하...

배상훈 그게 발전하는거예요.

이승국 그게... 그러면... 아..하아... 조심해야겠네요. 모니터. 똑바로 안쳐다보고 이야기해야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하나? 저도 고민을 한 번 해볼게요. 이렇게 쪽 얘기가 되면, SNS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결국 다 SNS, 1인 미디어 이 쪽으로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주로 미디어에서 SNS를 다룰 때를 보면 부정적으로 많이 다루긴 했었어요. 영화에서도 그랬고. 미디어에서도 다룰 때도. 뉴스에서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 됐는데. 이 영화는 SNS로 촉발된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SNS의 장점도 이야기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묘사된 SNS의 양면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상훈 지금까지 부정적인 것은 많이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여러 측면에서 저장할 수 있고, 그걸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1인 미디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런걸 통해서 자신의 감춰져있던... 자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걸 발견해가지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인거지. 이 기능 자체가 지금 사장되고 있는거죠. 그걸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 못보고 있는 겁니다.

이승국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대로. 사실 어디서든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기술 자체는 나쁘게 없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SNS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비단 스릴러영화. 가족 영화 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에 사용하는 양식에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로 입소문이 나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 곳이 시간제한이 있는 곳이라서 곧 마무리를 해야한다는 콜이 들어왔어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꼭 질문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질문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면서 질문.

관객3 SNS 요즘 보면,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류 중에서 대나무숲이라던가 아니면 랜덤채팅 같은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게 오늘 영화에서 개인 방송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소통

을 하잖아요. 약간 솔직히 주변에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의 깊은 내용을 다 털어놓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보고 싶었어요.

이승국 일단 제가 한 십초 십오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실제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아주 어두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에게 한 십분, 한 시간 안에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거 같아요. 왜냐하면 익명성의 힘을 빌리는거죠. 오프라인에서 말한다고해도 이 사람은 여행지에서 보고 말꺼니깐. 아 그땐 SNS가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나를 추적하지도 않을테니깐 이 사람에게 어디서 못하는 말을 해버리고 해소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던거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우리 사이에 여러... 가까이 개인들이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 공간으로써 하나의 이용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본인의 깊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제도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 다시 오죠. 내가 페이스북을 해야 하는... 그게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익명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른바 욕받이가 되어서 쓰레기로 치워버릴 수 있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하죠. 살아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니깐 그런 면에서는 이 공간은 무한한 긍정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을 쉽게 치워버리고 짧고 얇은 인간관계를 많이 만드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한계점인거죠.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승국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인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또 따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어떤 분...

배상훈 두... 두 분이 있습니다.

이승국 예고... 먼저.

관객4 저는 저 배경이 이제 한국이 아니잖아요. 조금 궁금했던게 저기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한 분 같아요.

이승국 어, 완전 똑똑하죠.

관객4 너무 똑똑해서...

이승국 싸움도 잘하시고

관객4 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혼자서 수사를 하고, 저렇게 된건데. 만약에 이게 한국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혼자서 수사를 한 것이 저렇게 빨리 반응이 돼서. 뭐. 범인이 바로 검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게 그게 궁금하고. 어... 사람이 없어졌을 때, 저렇게 전담하는 그런게 한국에도 있는지.

배상훈 아... 우리는 저렇게 빠리는... 여기는 극적인 설정이 로즈마리 형사가 일부로 일종의 덫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피해자라고하는 실종자 측이 일정

정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는 되지만, 너무 많이 접근하는 건 우리 경찰에서는 좀 배척을 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종전담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말씀하신, 걱정하신 정도는... 로는 사실 좀 부족하죠. 아직. 이건 사실 외국식으로. 미국은 18세 이하가 실종되면 바로 '엠버경고(AMBER Alert, America's Missing: Broadcasting Emergency Respon)s)'급의 큰 수사팀이 구성이 되거든요.

이승국 미성년 사건의 경우...

배상훈 예, 이런 미성년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성년 사건의 경우는 시간이 좀 쓰지만.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어차피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전담자가 해 갖고 해서, 부모님과 같이 움직이기는 합니다.

이승국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단은 현실은

배상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어린 아이들이 실종되고 못찾고, 이영학 사건 나고 그러면서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승국 아 그럼 뒤에 아까 오른 쪽에 혹시 계시면 하고, 아니면 왼쪽으로 넘겨드릴게요.

배상훈 저쪽. 저기

이승국 네. 노란색 옷 입으신 분하고 검은색 옷 입으신 분하고 계속 서있죠.

관객5 아, 제가 여쭙보려는건 앞에 분께서 비슷하게 거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형사가 체포되는 쪽에서 조금 의문이 생겼는데요. 한국에서는 경찰과 검찰 관계도 그렇고. 권력관계 같은 얽혀있어 가지고, 형사가 체포되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형사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형사 관련해서 증거가 다 있고 했을 때, 체포되는 경우가 가능한 일인지 한 번 여쭙보고 싶어요.

배상훈 자주 있습니다.

이승국 예? 그래요? 자주 있는 일인가요?

배상훈 실제적으로 수갑 탁 채우고 이런 건 아닌데. 여러가지 부실한 수사라던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어~ 일종의 직위해제 같은 거 당하는게 종종 있습니다. 저게 극적으로, 극적으로 사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바로 체포. 수갑채워서 나오는거가 되는거라서 극적으로 보이지만 ~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사람들은 바로 직위해제해서 조사받습니다.

이승국 저희가 가끔 뉴스나 영화에서 보는 거는... 이게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이라면 말씀하세요. 영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체포까지 가고, 직위해제까지 가는데 조금 시간이 가면 어느새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고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동론데 요런 식으로 쓰옥 봐 주기가 돼서 어느 순간 복귀해있다던가. 뉴스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희귀한 일인가요?

배상훈 아니요. 사건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중죄죠.

이승국 이 정도 죄는...

배상훈 이건 살인. 살인사건이잖습니까. 살인 사체유기와 관련된 거니깐. 근데 보통 일반적인 복직사건이라던가 뇌물사건 같은 건 비슷하게 합니다.

이승국 아,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배상훈 예. 바로 체포. 수갑은 채우지 않지만. '이리나오세요' 그러면...

이승국 어우, 그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이리나오세요. 뒤에 노란색 분 질문할 것 있으신가요? 아까부터 너무... 아, 죄송합니다.

관객6 하나, 여쭙보고 싶은데. 영화의 최고 명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모습을 꼽고 싶으신지요.

이승국 저는 화면보호기 장면 되게 좋아하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건 감정이 속하고 올라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자, 아버지가 딸이 아직 살아있다 느끼는 장면 있잖아요. 자동차 위에서 갈 때. 이야기 자체는 조금 어떤 부분. 제일 큰 반전이 '딸을 다시 찾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플롯 자체가 아주 놀랍다고 생각은 안했어요. 정말 흥미롭게 봤지만 이야기는 어떤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마지막 자동차가 뒤로 돌아가는 장면을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연출된 방식이 헬기가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무런 묘사없이. 안에 등장하는 배우들 얼굴도 없이. 음소거로만 등장하는데. 자동차가 가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자동차를 돌렸죠. 딱 가는데 감정이 딱 올라오더라구요. 딸이 살아있다. 살릴 수 있겠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살렸다 하면서 그 장면이 저는 가장 크게 기억이 나요.

배상훈 비가... 비가 오지 않았냐. 그러니깐 골든타임이 5일이 아니라 3일이다.

이승국 그렇죠.

배상훈 돌려라. 획 돌리는 거죠. 그 장면이죠. 그게 극적인 반전. 이게 완전히 새드엔딩으로 가다가 해피엔딩으로 돌아서는 그 지점. 사실은... 그게 실사는 아니지만 실사에 가까운 장면이 나온 거의 몇 안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승국 그죠. 아주 크게...

배상훈 저도 그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로프로 밑에 발견됐다고 하면서 극적으로 이 영화 자체가...

이승국 희망적으로 바뀌는거죠.

배상훈 이 영화 자체가 가족드라마가 되는거죠. 스릴러에서 가족드라마가 되는거죠.

이승국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통 스릴러로서의 역할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구요. 앞에 던졌던 떡밥들. 흔히 우리가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좀 물입이 깨진다던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앞에 아무런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면은 이게 뭐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비가 온 것부터 시

작해서 모든 단서들이 앞에 지나가면서 은근히 흘뿌려져있고 뒤에 그걸 회수로 영리하게 잘 했더라구요. 그래서 참신한 것 뿐만 아니라 정통 스릴러로서 어디가서 빠지지 않는 훌륭한 플롯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온갖 실험적인 장면들. 실제로 영화계에서 메이저 영화에 데뷔한 영화중에 영화배우가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감독님이 연출하는 것은 최초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조금 더 제작자 티모르 그 분이 계속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신호탄인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 일단 해외에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이런 분들이 힘을 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서치라는 영화는 8월 29일에 정식 개봉하니깐요. 혹시 재밌게 보신 분들 여유가 조금 있다, 개봉하고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최소한 저는 실제로 친구들에게 많이 말을 하고 다니긴 해요. "이 영화 개봉하면, 너 이걸 후회 안할꺼야" 특히 이런 스릴러 장르, 신선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도 일주일간 사유해보시고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재밌게 볼 것 같다 하는 친구 분들에게 추천해주시면은 영화사 측에서도 또한 감독님도 신이나서 이런 영화 더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저희가 쪽~ 약 40분 가까이 진행했는데,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배상훈 흠. 분명히 재밌게 본 영화고, 실제로는 여러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 못 갖춘, 해결 못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결손 속에서 벌어지는 애정 그 가족 애정이죠.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아직 그 대안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나오는 아이디. Fish\_&\_chip. 여러 가지 이름들. 이거 있잖아요. 실제 실종 사건에 뭐 였다가. 피시앤칩스 같은 경우, 어떤 그 관련된 곳에 실제 식당 이름이거든요. 아마 저는 감독. 이 제작자와 감독이 이걸 알고 있었을텐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왜 설명을 안하지. 이거 저거 그 팸플렛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거 혹시 나중에 가서 그걸 다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그와 관련된 사건과 연결된 것과 다 연결되어요.

이승국 실화 사건과 연관된 것과 연결된 키워드들.

배상훈 그냥 쉽게 만든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름이라던가, 아이디 이런게. 그냥 어디가서 사전 찾아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이승국 아, 개봉하고 교수님 특강 한번 또 하셔야겠네요. 키워드 총정리. 스릴러 매니아들 대상으로요. 서치는 다음 주 8월 29일에 개봉됨을 주지시켜 드리고요. 오랜 시간 영화 끝나고 밤 늦은 시간인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